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110-052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22-1한국생산성본부7층/전화 398-5314/전송735-7183/담당 박승범팀장(smileman@kcta.or.kr)

문서번호 : 사업1국 04-62

시행일자 : 2004. 2. 16

수 신 : 국회 법사위원회

참 조 :

제 목 :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케이블TV업계의 입장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월 9일 의결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개정안중 제71조 1항 후보자들의 방송연설의 3호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시 “지상파 1회 초과금지”단서 삭제에 대한 케이블업계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다 음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71조 1항 후보자들의 방송연설 3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지상파텔레비전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은 1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의 유침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 장선거가 본질적으로 지역 케이블TV방송국(SO)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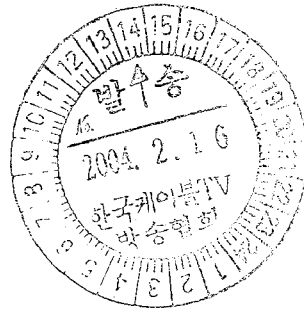
○ 이는 상기 조항이 선거의 대상과 내용을 세분하면서 3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경우에만 단서를 붙였다는 점에서도 근본 입법취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선거법개정안에 상기조항의 단서를 삭제한다는 것은 권역별로 이뤄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 밀착형 매체인 케이블TV를 통해 지역민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입니다.

선 결	위 원 자	이 동 훈	지 시	
집 수	일 차 시 간	64. 2. 19 15:00	전 체 · 공 람	수 리 문 위 위 전 결
처 리 과	수 번 호	250		조 사 관 박 성 진
담 당 자	처 리 과	법 사 위		
	담 당 자	안 종 근		

○ 또한 상기조항의 단서를 삭제한다면 각 입후보자들이 방송 연설비용이 케이블TV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지상파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고비용 선거운동을 근절한다는 정부의 정책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런 점과 함께 매체간 균형발전 및 케이블TV를 적극 활용한 미디어 선거문화 정착이라는 대의를 참조하시어 상기 단서조항의 삭제를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 장 유 삼 렬

■ 4월총선 케이블TV 역할 주목

지역SO 사회적 기능강화 '시험대'

오는 4월 총선은 케이블TV의 '사회적 기능'이 한층 신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케이블TV의 선거방송은 1995년 6월 지방선거 이후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두 6차례 이뤄졌다. 그렇지만, 올해 총선이 케이블TV 업계에는 '가장 특별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총선에서의 케이블TV 역할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가입자 규모에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전국의 케이블TV 가입자는 1081만5565명이다. 2002년 6월 말 약 590만, 2003년 3월 말 973만에 이어 급속한 성장속도다. 케이블TV 가입자가 2002년 하반기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2002년 마무리된 중계 유선(RO)의 케이블TV방송사업자(SO) 전환 등 유선시장 통합에 따른 결과다.

이유야 어찌됐든 SO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총선 출마를 앞둔 정치인들이 지역 SO를 의식해

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케이블이 탄탄한 가입자 기반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여론 매체로서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행정구역 단위로 나뉘어 있어 전국 77개 권역의 케이블TV가 선거방송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경합

지만, 지역채널은 케이블TV는 해당 지역구의 입후보 진행상황, 후보자 공약, 출구조사, 투·개표 현황 등을 차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 2002년 5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바른 선거 유권자 운동'이 주최한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는 이번 총선에

서도 벤치마크 모델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민주당 김민석

작년 9월말현재 가입자 1081만여명

후보토론회 등 상당한 영향력 예상

이 예상되는 몇몇 지역구에서는 현역 국회의원과 입후보 예정자들이 지역 SO를 잇따라 방문해 '얼굴도장'을 찍고 있다는 전언이다.

케이블TV협회 측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법규 내에서 ▲후보자 연설방송 ▲후보자 경력방송 ▲투·개표 방송 ▲방송사 주관 후보자 연설 ▲후보자 합동 토론회 ▲후보자 합동 연설회 중계방송 ▲기타 선거관련 프로그램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상과 중심의 선거방송이 개별 지역 선거구에 집중하지 못하

후보가 격돌한 대담 프로그램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지역 케이블TV 가입자에게 일제히 동시 방송됐으며, 지역별로 수차례 재방송됐다.

한편 최근 일부 SO들이 일찌감치 지역채널을 강화, 반응을 얻고 있다. 씨앤앰커뮤니케이션, 큐릭스, 드림시티, 강남케이블TV,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등은 지역 의회의 의정활동을 생중계하고, 지역내 현안을 발굴해 보도하는 등의 활동으로 지역채널로서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박창신기자 heri@dt.co.kr

케이블TV, 총선방송 통해 '재도약'

전국단위 프로그램편성등

선거방송기획단 9일 출범

‘17대 총선은 케이블TV와 함께’

케이블TV업계가 오는 4월 총선을 대비해 선거방송기획단을 구성하고 케이블TV 위상 재정립에 나선다.

선거방송기획단은 오는 9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돌입한다. 전국 케이블TV사업자(SO)들은 선거방송기획단을 통해 각 정당대표 초청 토론회 등 전국단위 프로그램 편성을 구상하고 있다. 개표 과정과 결과는 주간방송사를 통해 생방송으로 전국 SO에 방송된다. 이외에 SO들은 개별적으로 지역 후보를 초청해 TV토론회 등을 내보낼 계

획이다.

또 선거방송기획단은 각 지역별로 선거보도기획단을 구성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설명회를 열어 실무진 교육을 실시한다. 또 2월 중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를 초청해 보도준칙 준수 선서 등 공정보도를 다짐하는 행사도 준비중이다.

주간방송사는 보도채널 YTN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방송기획단 구성을 지휘하고 있는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최근 YTN에 제안서를 보냈으며 이미 구두로는 합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SO들은 이번 선거방송을 케이블 가입자에게 지역대표 매체로서 케이블TV 이미지를 확고히 세우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SO가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만큼 가입자들에게 동네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최대한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또 케이블 가입자에게는 지금까지 케이블방송이 저렴하나 볼 건 없다는 상대적으로 폄하된 인식을 뒤집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후보 토론회나 개표 과정, 결과 등이 생방송으로 케이블TV를 통해 각 가정으로 전달되면 지상파 방송사를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또 “이번 선거방송을 통해 케이블TV 장점에 대한 시청자 교육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달련기자 dry00@dt.co.kr

케이블TV 총선채비 분주 |

토론회등 선거방송 익히기
제작·보도 관련 교육 열기

케이블TV사업자(SO)들이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 공부'에 열심이다.

'미디어 선거'로 치러질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의 합동토론회를 비롯한 각종 선거방송에서 케이블TV의 역할이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공동 선거방송 기획단' (단장 오광성 SO 협의회 회장)의 움직임이 최근 활발해졌다.

10일에는 서울지역 케이블TV(SO) 선거방송기획단 실무진과 선거방송의 주간 방송사인 YTN, MBN, 국회방송 등이 회의를 갖고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정당대표 정책 토론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이어 12일에는 전국 SO의 보도제작 실무자들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가 마련한 '케이블TV 선거방송 보도제작 실무 책임자 세미나'에 참석해 선거방송 제작·보도와 관련한 교육을 받는다.

이 자리에는 공명선거실천시민 운동협의회 박인주 집행위원장이 참석해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케이블TV의 역할에 대한 강의하고, 방송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최현숙 단장이 미디어선거시대 선거방송심의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에서도 담당자를 파견해 이번 개정 선거법에 포함된 선거방송 관련 법률을 케이블TV 실무진에게 교육할 계획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세미나 이후 SO 실무진에게 전자개표 프로그램 업체, 인터넷 동영상 실시간 중계 솔루션업체 등 관련 업체들의 제품도 소개할 계획이다.

최근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방송 토론회위원회'를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총선 토론방송이 케이블TV로 확대될 전망이다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고비용

선거운동을 근절하기 위해 각종 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선관위에 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를 설치해 정당과 후보들이 TV방송토론회와 신문광고 등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어 선거운동기간 중 지상파와 케이블TV를 통해 총선 입후보자들의 정책토론회와 대담토론회를 최소 1회 이상 방송한다는데 합의했다.

정책토론회와 대담토론회는 선관위 산하에 신설 예정인 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가 주관하며 제작비용은 선거공영제에 따라 국고에서 전액 지원된다. 총선의 경우 선거구가 200개가 넘다 보니 현실적으로 지상파 방송사가 선거방송을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는 케이블TV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달린기자 dry00@dt.co.kr

케이블방송, 선거기획단 출범

오는 4월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케이블TV방송사(SO)들의 선거대책기구인 '케이블TV 공동 선거방송 기획단'(단장 오광성 SO협의회 회장)이 지난 9일 출범했다.

케이블TV 선거방송 기획단은 SO협의회 운영위원 9명, 한국케이블TV협회 사무국 3명, 보도전문채널인 YTN의 선거팀장 등 13명으로 '중앙 선거방송 기획단'을 구성하고, 지역 조직으로 '6개 지역별 선거방송 기획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게 된다.

또 기획단은 △공정보도 우선 준수 △책임있는 정책 보도 △공중의제 중심 보도 △지역주의 철저 배제 등의 케이블TV 선거방송 보도준칙을 마련했다.

선거방송 기획단은 이를 기반으로 오는 4월2일 전국 SO와 YTN이 공동 주관하는 형식으로 각 정당 대표를 참여시킨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단은 지역별로 17대 총선 후보자와의 대담과 후보자간 토론회를 개최하고, 후보자의 TV 방송연설을 중계하며, 선거당일에는 전국단위 개표현황은 YTN과 프로그램을 공유하되 지역별 개표방송은 SO 지역별로 진행하는 등의 세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케이블TV는 1995년 지방선거에서 선거방송을 처음 선보인 이후 2002년 6월 제3차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전국 SO들이 '선거방송 공동기획단'을 결성, 각 지역의 광역단체장과 구청장, 시의원 후보자 대상의 선거방송을 진행한 바 있다.

박창신기자

[저작권재(c)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신문게재일자 : 2004/01/12
○ 입력시간 : 2004/01/12 14:35

[되돌아가기].

케이블TV協 “우리도 총선보도”

2004. 1. 12

한국일보 2면

을 4월 실시되는 17대 총선에서 케이블TV 매체의 역할이 주목된다.

가입자 1,100만 가구 시대를 맞은 케이블TV가 지역매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총선보도를 통해 위상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9일 ‘케이블TV 공동 중앙선거방송기획단’을 출범하고, 전국 118개 지역 케이블방송사(SO)가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 선거방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역 SO들이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관련한 내용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채널에 내보낸 적은 있지만, 전체 SO가 협력해 선거방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보도전문 채널 YTN을 총선 보도의 주간 방송사로 선정했으며, 지역별 후보자 대담 토론회, 후보자 TV 방송연설 중계, 지역 선거구 개표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물론, 정당대표 정책토론회, 전국개표 상황 등 전국 단위의 프로그램 편성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총선보도를 통해 ‘케이블 TV의 힘’이 가시화할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케이블TV 가입자는 1,100만 가구를 돌파해 전체 시청가구인 1,500만 가구의 70%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케이블TV 가입자가 256만 가구였던 것에 비춰보면 비취약 성장세다. 총선 출마를 앞둔 현역의원과 입후보 예상자가 지역 SO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지상파에 비해서는 시청률이 많이 떨어지지만, 케이블TV가 지역과 가장 밀착한 매체라는 것이 최대 강점이다. KBS MBC 등 전국 단위의 지상파 방송사는 선거와 관련한 정보의 전달에 있어서 파급력이 크지만, 지역 현안에 집중하



9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케이블TV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기획단’ 출범식.

‘선거방송 기획단’ 출범등 공조 지역 밀착성 앞세워 위상 제고 ‘정치권과 연계’ 부작용 우려도

기 어렵다. 그러나 지역SO는 유권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인 후보자 공약, 지역별 출구조사, 두·개표 현황 등을 심층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지역교통방송, 노래자랑대회, 맛집소개, 지역뉴스 등 지역SO가 자체 운용채널을 통해 내보내고 있는 지역밀착형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변화를 반영하듯 올 초부터 ‘열린우리당 경선 TV 토론회’(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주최), ‘열린우리당 의장 후보초청토론회’(MBN 주최) 등 각 정당의 행사를 케이블TV가 주도적으

로 중계하고 있다. 케이블TV협회 주최로 4월 2일 열리는 ‘정당대표 정책토론회’는 전국 지역SO의 지역채널과 YTN 채널을 통해 동시에 송출될 예정이다.

김진경 케이블TV협회 사업지원2국 차장은 “올해 총선은 그 동안 지역채널 관리에 신경을 써온 케이블TV 방송사에게 있어 그야말로 지역매체로서의 역량과 가능성을 시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SO가 4·15 총선 앞두고 정치권과 연계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총선보도를 빌미로 각종 방송매체 정책에서 특혜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 방송계의 한 관계자는 “SO업체가 선거방송을 무기 삼아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 등 업계 현안과 관련해 지역 정치인에 대한 입김을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러기 2주 4면 (428쪽)

케이블TV “총선보도 위해 뭉치자”

선거방송기획단 출범... 전국·지역방송 연결

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열)가 이번 17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 기획단을 출범시켰다.

협회는 지난 9일 서울 적선동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선거방송 기획단 출범식을 열고 중앙선거방송기획단 단장으로 오광성 SO협의회회장(C&M대표이사)을 선임했다.

이번 기획단의 운영위원은 SO협의회 운영위원 9명, 케이블TV협회 사무국 3명, YTN 선거팀장으로 구성됐다. 지역 선거방송기획단은 6개 지역 SO협의회 단위로 지역 선거방송 기획단을 구성하고 각 지역 SO협의회장을 기획단장으로 기획단 협의체를 운영한다.

케이블TV협회는 이번 총선 선거보도를 중앙기획단을 통한 전국방송과 지역기획단을 통한 지역방송으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중앙기획단 차원에서 오는 4월에 전국케이블TV방송국 협의회와 YTN의 공동주관으로 정당대표 정책 토론회를 열어 전국SO와 YTN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지역SO 자체채널 및 YTN채널을 통해 동시 송출할 예정이다.

지역방송은 SO 지역별 후보자 대담 토론회, SO



오광성 C&M 대표이사 등 케이블 TV업계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적선동 한국케이블 TV방송협회에서 선거방송기획단 출범식을 가졌다.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지역별 후보자 TV 방송연설 중계, SO 지역별 개표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며, 전국단위 개표현황은 YTN과 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전국단위로 중계키로 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협회는 ‘공정보도 우선

준수, 책임있는 정책보도, 공중의제 중심보도, 지역주의 철저 배제’를 뼈대로 하는 ‘케이블TV 선거방송 보도준칙’을 발표했다.

선호 기자 arioso@mediatoday.co.kr

케이블TV “총선보도 위해 뭉치자”

선거방송기획단 출범... 전국·지역방송 연결

선호 기자 arioso@mediatoday.co.kr

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상열)가 이번 17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 기획단을 출범시켰다.

협회는 지난 9일 서울 적선동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선거방송 기획단 출범식을 열고 중앙선거방송기획단 단장으로 오광성 SO협의회장(C&M 대표이사)을 선임했다. 이번 기획단의 운영위원은 SO협의회 운영위원 9명, 케이블TV협회 사무국 3명, YTN 선거팀장으로 구성됐다. 지역 선거방송기획단은 6개 지역 SO협의회 단위로 지역 선거방송 기획단을 구성하고 각 지역 SO협회회장을 기획단장으로 기획단 협의체를 운영한다.



▲ 오광성 C&M 대표이사 등 케이블 TV업계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적선동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선거방송기획단 출범식을 가졌다.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케이블TV협회는 이번 총선 선거보도를 중앙기획단을 통한 전국방송과 지역기획단을 통한 지역방송으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중앙기획단 차원에서 오는 4월에 전국케이블TV방송국 협의회와 YTN의 공동주관으로 정당대표 정책 토론회를 열어 전국SO와 YTN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지역SO 자체채널 및 YTN 채널을 통해 동시 송출할 예정이다.

지역방송은 SO 지역별 후보자 대담 토론회, SO 지역별 후보자 TV 방송연설 중계, SO 지역별 개표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며, 전국단위 개표현황은 YTN과 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전국단위로 중계기로 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협회는 ‘공정보도 우선 준수, 책임있는 정책보도, 공중의제 중심 보도, 지역주의 철저 배제’를 뼈대로 하는 ‘케이블TV 선거방송 보도준칙’을 발표했다.

입력: 2004.01.14 12:37:28

▶ [선호기자의 다른기사 보기](#)